

# ‘박광태 대표 선임’ 반발에 이용섭 “투자자 매우 걱정”

“인적네트워크·행정경험 등 종합 고려한 선택”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상법의 규정, 인적네트워크와 무게감, 행정경험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며 회사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9일 오전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절차적인 측면, 대표이사 자격요건, 투자자들 우려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보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주가 결정한다”며 “그동안

현대차 고위임원 출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출신, 노사정 위원장 출신, 지역전문 행정가 출신 등을 놓고 주요 주간 협의를 거쳐 박 전 시장을 민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낸 투자자들은 누구보다 공장이 안정돼 높은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내길 바라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했는데 지역 사회 일부가 교체하자고 해 투자자들은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광주노사민정이나 지역사회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 임원 선임이나 경영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간섭을 하게 되면, 과연 경쟁력을 기질 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많이들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시장의 대표이사 자격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노와 사의 이해관계가 많이 상반돼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누가 잘 조정할 수 있는 경륜과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협조를 누가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 앞으로 글로벌 모터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행정경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자들이 박 전 시장을 대표이사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의미에서 박 전 시장이 여러 후보 중 적임자라 판단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노사민정의 등등한 참여라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맨 수장에 비리에 연루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선임철회를 요구했다.



전남도와 공동 연구중인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치매 치료제 원천 기술 개발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

## 치매치료제 원천기술 개발 전남도 ‘블루바이오’ 탄력

전남도가 새 천년 비전으로 ‘블루 바이오’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이 치매 치료제의 원천기술 개발로 미국 특허를 획득,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줄기 세포 유래 바이오신약 개발을 공동 연구 중인 박세필 제주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최근 ‘알츠하이머 질환 연구모델 형질전환 돼지 생산기술’을 출원, 미국 특허를 최종 획득했다.

우리나라 줄기세포 1세대 연구자인 박 교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고, 지난 2009년 멸종위기 제주 흑우 복제를 비롯 치매 걸린 돼지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에 미국 특허를 받은 기술은 3개 알츠하이머 질환 유발 유전자를 동시에 과발현되는 질환 모델 돼지 생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치매 원인을 밝히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 특허법인의 특허기술 가치 평가’에 따르면 예상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추정치를 적용했을 때 향후 기술이 완성된 시점은 기준으로 대략 2024년부터 9년간 매출 4조4000억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2월 박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남도 줄기세포 산업화 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박 교수와의 이번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에 연구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제 개발을 총괄 할 국가 R&D기관을 전남에 설치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세필 교수는 “이번 미국 특허 획득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국가적 끼거”라며 “전남도의 줄기세포 연구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암, 치매 등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구, 내년 주민참여예산 20개 사업 최종 확정

광주 동구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20개 사업을 최종 확정 했다고 10일 밝혔다.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거환경·공공시설 개선, 주민소득 증대방안 등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채택되면 시행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동구는 지난 7월까지 구민 제안 구정현안사업과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동 자치사업 등 총 45건의 사업을 제안 받아 주민총회를 포함한 3차례 심사,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20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이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70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어린이강좌도 가야금, 해금 2개 강좌가 운영될 계획이다.

## 남구 “한가위에도 비상진료·쓰레기 수거합니다”

광주 남구는 추석 연휴에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소 비상 진료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한가위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3곳의 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에서 비상 진료가 실시된다.

응급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응급 의료기관 및 당직 약국 제도 운영된다.

광주 기독병원과 씨티병원, 동아병원 3곳의 병원이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내에 소재한 약국 38개소가 연휴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각 기관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와 길거리 청소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특별 근무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북구, 주민 200명 대상 사회교육 운영

광주 북구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2019 북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함께 하는 가족! 함께 느끼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가족 간의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의 개념 안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오는 9월 11일까지 200여명의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19일 오전 10시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관련 전문기를 초청해 총 4개의 무료강좌와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 광산구, 사회적경제 제품 매대 한자점빵 열어

9일 광주 광산구가 구청 1층 로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홍보·판매장인 ‘한자점빵’을 열고, 개점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예고했다.

한자점빵은 광산구 사회적경제 공동 브랜드 ‘한자’를 기초로 만든 사무실 캐비닛 크기의 이동식 매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영세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제품 판로를 넓히고, 주민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해 광산구는 이번 점빵을 마련했다.

5개 참여기업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씩 돌아가며 자신들의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 매대는 이동의 편리성 이외에도 인증샷의 배경으로, 24시간 기업 제품 홍보에도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나주 태풍피해 농가 찾아 지원 약속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이 9일 나주를 찾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9일 나주를 찾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농협차원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농협은 편성된 무이자자금 5000억원과 농축협의 재해 예산 143억원을 활용해 농

가 피해규모에 따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해보험금 50% 선지급과 더불어 영양제·살충제·비료·비닐 등 영농자재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풍으로 인한 배, 사과 낙과 1500톤을 가공용으로 긴급수매하고 미숙과에 대한 친환경 액비 제조 지원과 소비촉진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한다”며 “특히 도복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정용으로 특별매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금리우대, 특례보증 및 상환 연기 등 각종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생필품 지원, 영농 작업반을 활용한 영농인력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